

# ‘위반소지’ 장흥 향우회 지원 조례 ‘논란’

식비·특산품 보조 한계 없어...상위법 상충 우려  
전남도 재검토 요청...장흥군 “특별한 의도 없다”

장흥군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향우회 지원 교류 조례’를 공포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상급 지자체인 전남도는 관련 조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장흥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적잖은 진통도 예고하고 있다.

18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왕윤채 장흥군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이 조례안이 지방재정법과 전남도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를 위반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례를 보면 장흥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군이 주최하는 축제나 각종 행사, 토론회, 문화·체육행사, 고향 순례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 지원과 각종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의례적인 범위의 식

비 및 특산품 지원도 인정된다. 문제는 의례적인 범위의 식비와 특산품이 얼마까지인지 기준이 없는 등 상위법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장흥군은 전남도가 재검토 요구를 했지만,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조례를 공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친목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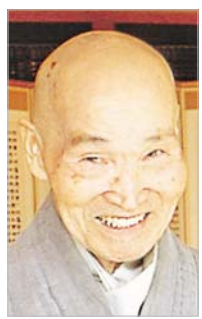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효라는 해당 판례도 있다”며 “기초 지자체의 입법권 보장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했으며 위법한 사안이 발생하면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등 상급기관의 재검토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굵직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정종순 군수와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로 고향을 찾은 동창회 회원들에게 식비와 차량을 지원해 기소된 점에 비춰볼 때 조례 공포를 강행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제시하며 유리하게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장흥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혹은 모두 오해일 뿐이며 특별한 의도를 갖고 제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 무안 ‘청화스님’ 학술세미나 개최

20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무안군이 오는 20일 오후 1시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청화대종사 기념사업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 운남면 출신인 청화스님(1924~2003·사진)은 출가 후 40여년간 묵언수행, 일종식, 장좌불와로 일관하는 구도의 삶을 실천한 당대의 선승이다. 배광식 전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 이번 세미나는 최홍순 동국대 교수가 제작한 청화스님 행장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조준호 한국외대 교수의 ‘삼연은경을 중심으로 고찰한 돈점과 선오



후수’, 중앙승가대 법상 스님의 ‘금강심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오 후수와 돈점론’, 황금연 경희대 교수의 ‘무주청화 스님의 선오후수와 육조

혜능의 돈점론에 관한 연구’가 각각 발표된다. 발표 후 토론은 정성준 동국대 교수, 김호기 동국대 교수, 최성렬 조선대 교수가 담당하며,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박선자 청화사상연구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무안=박주현 기자



“영광 튼lip꽃밭서 사랑 고백을...”

영광 불갑사 관광지에 4월의 탄생인 튼lip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불갑사 관광지 입구부터 만발했던 튼lip이 봄바람에 날아 흩날리며 봄날의 정취를 풍겨 오기 시작했다. 영광군은 지난해 겨울부터 주요 관광지 일대에 튼lip 6만 본을 식재했다. 현재 피어있는 튼lip은 오는 25일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 제공

## 영광 ‘칩’ 과의 전쟁 선포 주요도로 침범...신약 살포

영광군은 산림과 가로수에 피해를 주고 도로까지 줄기를 뺏아 번식하는 칩덩굴을 완전 제거하기 위해 18일 ‘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영광군은 오는 5~8월 국도 22호선과 백수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경관을 해치는 칩덩굴 제거를 위해 신약 살포 등을 포함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주요도로 주변 칩덩굴 완전제거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태장산 산림휴양레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임도 주변 칩덩굴 제거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동안 칩덩굴을 반복 제거한 결과 영광지역 국도 22호선에 가로수로 심어진 배롱나무는 칩덩굴 피해로부터 벗어났다. 영광군은 작업 후 다시 발생한 칩을 오는 2020년까지 반복 제거할 예정이다. 올해 칩 제거 사업에는 칩에 특화된 신약을 살포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영광=곽승훈 기자



담양군과 (사)담양죽로차연합회에서 ‘죽로차와 함께 대숲향을 담다’라는 주제로 죽로차와 함께하는 담양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담양군 제공

## “담양 죽로차 문화체험 신청하세요”

매월 1일·매주 토·일·공휴일 진행

담양군과 (사)담양죽로차연합회에서 ‘죽로차와 함께 대숲향을 담다’라는 주제로 죽로차와 함께하는 담양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8일 밝혔다. “오늘은 죽로차 마시는 날”은 매월 1일 죽녹원 일원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다와 다도 체험을 통해 차 활용법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담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damya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죽로차와 함께하는 담양여행’은 매주 토·일·공휴일 죽녹원 내 우송당, 봉황루와 메타세쿼이아랜드 3개소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도 체험과 죽로차 시음행사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담양=장동원 기자

## 함평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필기 대거 합격 ‘화제’

지역 내 7명...경찰서 연계 교통이론 이해도 높여

함평군 결혼이민자 7명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합격한 7명 모두 센터가 운영하는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반 출신으로,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2차 교육과정 대한 신청 문의가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다. 앞서 센터는 함평경찰서와 연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필기과정을 운영했다. 센터는 교통법규 및 표지판 설명에 전문용어가 많은 만큼 각 출신국가 통·번역지원사를 고용해 교통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나주운전면허시험장과 협의해 정답체크, 오답수정 등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에 익숙지 않은 결혼 이민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 합격자 A씨(34·여)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운전면허시험은 염두도 못 냈는데, 이번 교육과정은 모국어로 진행 돼 이해가 수월했다”며 “남은 실기 시험도 꼭 합격해 혼자 운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바래다주고 싶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함평=윤예준 기자



결혼이민자 7명이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함평군 제공

## 나주 개별공시지가 열람

나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 토지 25만9,776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처리 절차는 의견서에 명시된 해당 필지를 감정평가가가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2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확정한다. /나주=이재순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담양 봉산면 이웃사랑 봉사활동

담양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봉산면 새마을부녀회·적십자부녀회는 최근 봉산면 죽림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화장실 개량과 대청소, 빨래

와 소독을 실시했다. 김민지 봉산면장은 “여러 봉사단체에서 연합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시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 나주 영산동-성남 수내1동 주민자치위 자매결연

나주시 영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영산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측은 지역발전

과 주민자치 향상을 위한 긴밀한 우호 관계유지를 통해 지역특산품 및 농산물 직거래 판로 알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나주=이재순 기자



### 장성 강소농 육성 심화교육

장성군은 최근 화순금호리조트에서 농업인 33명을 대상으로 ‘2019 강소농 육성 심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을 공유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강소농 우수농장인 ‘함급농장’을 방문, 유기농 7분도미의 상품화와 마케팅 방법 교육 등이 진행됐다. /장성=전일용 기자